

올해 첫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'롯데 중부권 메가허브터미널'·'파스토 용인1센터'

- 빅데이터·인공지능(AI) 등 최첨단 기술로 물류 효율성은 높이고 물류비용은 절감
 -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받으면 0.5%p ~ 최대 2%p 낮은 이자로 대출 가능
 - 물류산업 첨단화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할 것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심사(3.24)를 거쳐 롯데 중부권 메가허브 터미널(롯데글로벌로지스)과 파스토 용인1센터(파스토)를 올해 첫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했다고 밝혔다.

○ 충북 진천에 위치한 롯데 중부권 메가허브 터미널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파스토 용인1센터는 서류심사(3.3) 및 현장검증(3.9)을 거친 후 최종 심사에서 모두 1등급*을 받았다.

* **기능영역**(입고부터 출고까지 물류 과정의 자동화 정도)과 **기반영역**(건축물의 구조적 성능·친환경성·안전성 등)을 평가하여 **첨단화 수준에 따라 1~5등급 차등 부여**

□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 장비·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·안전성이 우수한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, 인증받은 물류센터는 첨단화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(대출이자의 2~0.5%p)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.

○ '21년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CJ·한진 등 대기업부터, 세종해운크레텍 등 중소·중견기업까지 다양한 유통·물류기업 총 33개소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였다.

<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 개요>



- ▶ (인증기관) 한국교통연구원
- ▶ (주요 혜택) 대출이자(시설자금·운영자금)의 일부(0.5~2%p)를 지원
- ▶ (인증등급) 물류센터의 기능·기반영역을 평가하여 1~5등급 부여
- ▶ (현황) '21년 18개소 인증 및 4,660천억 대출 지원
'22년 15개소 인증 및 3,813억원 대출 지원

- 롯데 중부권 메가허브 터미널은 물류센터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전체 터미널 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(AI) 기반의 첨단시스템을 구축하였다.
 - 특히,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화물의 형상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처리하는 AI 형상인식 분류시스템, 5면 바코드 스캐너, 물량 분산 최적화 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였다.
 - * 최첨단 시스템 도입으로 1일 처리 박스 55% 증가, 물류비용 15.6% 절감 효과
- 파스토는 중소기업 최초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, 첨단 물류장비 및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등 물류 첨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.
 - 이번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파스토 용인1센터에는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찾아 꺼내오는 피킹(picking) 시간을 줄이기 위해 로봇 피킹이 가능한 자동창고시스템(Auto Store)과 분류 및 포장 작업을 고속 수행하는 최첨단 분류기(Sure Sort)를 도입하였으며,
 - 물류작업 전반에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는 등 생산성 향상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.
-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“물류센터에 도입된 첨단기술로 물류 효율성이 높아지고 물류 비용이 절감되는 등 물류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” 면서,
 - “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물류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나아가 물류산업 첨단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 첨단물류과	책임자	과 장	안진애 (044-201-4006)
		담당자	사무관	최은영 (044-201-4013)



참고 1

23년 제1호 인증센터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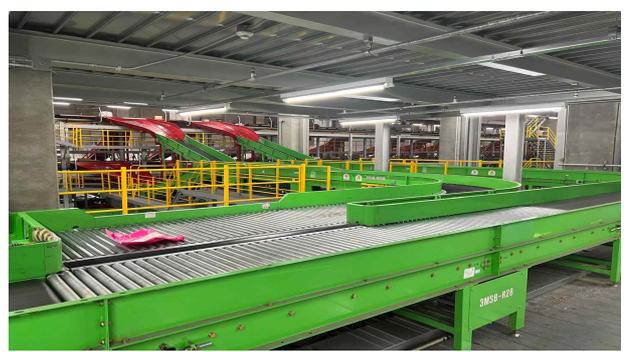
센터 전경



최첨단 분류기



5면 바코드 스캐너



물량 분산 최적화 시스템

< 롯데 증부권 메가허브 터미널 >



센터 전경



최첨단 분류기



자동창고시스템(Auto store)



무인지게차 작업공간

< 파스토 용인1센터 >

참고 2

인증제도 및 이차지원 사업 세부 기준

□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개요

- (개요)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·운영 중('21~)
 - 센터 건축 전 설계도 등으로 인증하는 예비인증과, 준공 이후의 본 인증으로 구분되며, 인증센터는 2~0.5%p 대출이자 지원
- (경과) ' 21년 인증제 도입하여 총 33개소 인증
 - * '21년 18개소 인증, 4,660억 대출 승인 / '22년 15개소 인증, 3,813억 대출
- (인증기준) ① 기능영역 : 입고부터 출고까지 물류 과정별 첨단자동화 수준 ② 기반영역 : 건축물의 구조적 성능, 친환경성·안전성 등
- (인증등급) 평가총점(1000점 만점)*을 기준으로 1~5등급으로 차등부여
 - * (1등급) 950 ↑, (2등급) 950~850, (3등급) 850~750, (4등급) 750~650, (5등급) 650~550
- (인증절차) 신청기업 서류제출 → 전문가 인증심사단 서면 및 현장 심사 → 인증심의위원회 인증여부·등급 결정 → 인증기관 인증서 발급
- (사후관리) 인증 물류센터에 대한 정기점검(3년 주기) 및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시 수시점검 실시

□ 스마트물류센터 이차지원 사업('21.5월 이차보전사업 운영기준)

- (지원대상) 스마트물류 인증·예비인증을 받은 물류 또는 유통사업자
- (지원자금) ① 신·개축, 장비 투자 등 시설자금, ② 경상적 운영자금
- (지원금리) 기업규모 및 인증등급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금리 차등

인증등급	중소	중견	계열대기업 등
1등급	2.00%p	1.75%p	1.50%p
2등급	1.75%p	1.50%p	1.25%p
3등급	1.50%p	1.25%p	1.00%p
4등급	1.25%p	1.00%p	0.75%p
5등급	1.00%p	0.75%p	0.50%p

- (대출한도) 기업별 시설자금 1,500억, 운영자금 100억